

식을 줄 모르는 결사의 열기

금산사·송광사 등 결의대회 잇따라... 대구·경북지역은 불국사 끝으로 완료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 7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이며 불교 문화재에는 민족의 삶이 담겨져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최근 이웃 일본의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들의 구호와 복구에 사용해 달라져 성금 1000만원을 이룬다는 동행에 전달했다.

조계종립 송광사(주지 영조)도 7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법회에는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대화사, 격려사, 개발로 인해 수해현황이 전해 받은 전등사의 보고를 담은 대중연설, 결의문 낭독, 선언문, 발원문, 정진이 이어졌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7일 경내 대웅전에서 민족문화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정부의 종교편향과 일부 종교의 어리석은 믿음에 굴하지 말고 불교문화의

정통성을 옹골케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날 불국사를 마지막으로 고운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등 5개 교구본사의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화엄사도 3일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조직하고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적극 동참했다. 주지 종삼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제자들은 왜곡된 민족문화정책을 규탄하고,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엄사 민족문화수호위원회에는 명선 스님(원로의원)을 증명으로 위원장 종삼 스님, 부위원장 영관 스님(천은사 주지), 집행위원장 일문 스님(종무국장), 부집행위원장 성문 스님(용문사 주지)이 임명됐고 집행위원은 각 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이 맡았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화엄사 대중들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대웅전 앞에 마련한 장기기증 서약식에 참여해 생명결사의 의미를 살리는 사후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종삼 스님과 영관 스님을 필두로 화엄사 본사와 각 말사 스님들은 향후 사후 장기



금산사는 4월 7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증 희망등록을 통해 5대결사 중 생명결사의 구체적 실천에 동참하기로 했다.

2일에는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법만)가 민족전통문화 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대웅전보전 앞에서 개최했다.

전통문화 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염원하는 범종의 타종과 함께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종교편향과 전통문화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불교가 자분을 탐하는 속된

종교로 내비치기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이성기 공동대표와 최근 사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 성북동 전등사 서삼석 신도회장이 연설에 나서 현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수해환경 파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월정사도 8일 결의대회를 열고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조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다진 우애

화순전대병원 봉사자 이명옥, 곽윤희, 김현자님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안겨주는 것을 느껴요. 작은 도움이지만, 기뻐하는 환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 무렵,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삼총사' 이명옥, 곽윤희, 김현자

(사진)님을 자비신행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화순전대병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환우가족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환우들에게는 이들이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다.

삼총사의 활동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자비신행회에서 호스피스교육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봉사를 함께했고, 화순전대병원이 개원하면서 불교법당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레 호스피스 봉사도 함께하게 됐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과 돌이켜보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아파할 때는 특히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들의 활동은 환자와의 교감이 우선이다. 그 후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목욕봉사를 기본으로 한다. 3명은 한 팀이다. 서로의 눈을 보면 척하고 통하니 이심전심이다.

아무리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삼총사라 해도 환우들의 목욕시간은 언제나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환자들은 몸에 의료장비가 많이 부착되어 있어 목욕도중에 발생할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인 삼총사를 만났지만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지닌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듯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1빛고을 관등축제 개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가 '빛과 생명으로 함께하는 문화광주'라는 주제로 4월 20일 광주시청과 광주역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6일~8일까지 3일간 광주공원과 광주전 일대에서 '2011 빛고을관등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6~8일 광주전을 다시 찾은 전통 물고기를 형상화한 등과 전통 등 전시가 진행되며 빛고을 관등축제 체험관, 길거리 음악회가 마련된다. 또한 6일에는 연등법회와 연등음악회가 광주공

원 앞에서 개최되고, 같은 날 저녁 7시부터는 광주공원에서 총장로, 금남로로 이어지는 전통 등 행진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전에서 실시되는 전통 물고기등과 전통 등 전시다. 이 전시에서는 광주전의 오염으로 광주시민의 문화공간에서 밀려났던 광주전에 도종 물고기가 다시 올라와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전통 등으로 만든 도종물고기 100여 점이 선보인다.

광주전 주변에는 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 전통 등 체험 공간, 각 신행단체 체험부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봉축기획단장을 맡은 법선 스님(문민정사 주지)은 "이번 축제는 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민간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불자여러분과 광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시민들, 지역 문화재 멘토 자청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단장 정인서)은 광주지역의 문화재를 가꾸고 모니터링 하는 사업단 출범식을 4월 5일 광주 남구 양림동 '양림동지킴이센터'에서 가졌다.

문화재청과 광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은 올해 광주지역 132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점검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재 활용 및 교육 사업을 병행한다.

또 양림동센터는 남구지역의 주요문화재를 소개하고 어린이와 양림동 주민을 위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안내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정인서 빛고을문화재지킴이사업단장은 "센터는 양림동센터에 이어 문화재교육센터, 모니터링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의 고유 문화유산들이 후대에 물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전주로터리클럽, 승합차 기증

금산사 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에 11인승 승합차가 새로 마련됐다. 새전주로터리클럽(회장 박찬호)은 4월 7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편리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2900만원 상당의 11인승 승합차

를 기증했다. 박찬호 새전주로터리 클럽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식을 듣고 상응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 권익위한 도예전 열려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 성료

대구 상인동 문수포교도량 주지 효신 스님은 4월 6일 오후 대구동아쇼핑 10층 동아미술관에서 '흙 그리고 불과 함께한 외길 40년'을 주제로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도예전을 개최했다.

12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장애인 권익보호금

마련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효신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장애우 권익 보호와 이웃돕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승도예가 도천 서광윤 씨(서광윤요 대표)는 1970년 전통요장인 지순택요에 입문한 청자·백자 대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근본불교 설법회 열린다

남방불교의 진수를 느끼는 근본불교설법회가 열린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원주 해피법당(주지 뽀나디빠)은 서울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센터와 원주 관설동 해피법당에서 근본불교설법회인 해피법회를 개최한다.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 보현실에서

5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오후 7~9시, 원주 관설동 해피법당에서 5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열리는 해피법회는 3개 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 무료로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http://cafe.naver.com/happybupdang>)을 통해서 인터넷 수강도 가능하다. (033)734-4745 노덕현 기자

우리음악극

Korean Music Theatre

Bukcheong Lion Dance

북청사자춤, 탈춤, 사당춤, 무동춤, 굿춤 등 전통연희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극적구조를 강화시킨 우리 음악극!

통소, 북, 징, 장구 등 다양한 전통악기 라이브 연주!

어린이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관람 가능한 공연!

이 시대 전쟁과 환경파괴, 천재지변에 대한해법으로 '사랑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

북청사자야 놀자

오태석

작, 연출

2011년 신작

북청사자놀이와

삼국유사 설화의 만남

서울남산국악당

2011.03.18 (금) - 04.17 (일)

Seoul Namsan Traditional Theater
(충무로역 3번출구, 한옥마을내)

화~목 8:00PM / 금 3:00, 8:00PM
토~일 3:00PM

예매: 인포샵 02)399-1114~6
www.sejongpac.or.kr/sngad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단체문의: 서울남산국악당 02)2261-0514